

대림산업, 기본급 4% 인상 합의!

석유화학사업부 2003년 임금협상 합의 ... 3급 이하는 3만원 추가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대표 장진양)가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결과 노사양측이 기본급 4% 인상안에 합의했고 노동조합도 합의안을 가결해 임금·단체협약이 종료됐다.

9월2일 노사 양측 대표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15차까지 이어온 실무교섭을 마치고 최종교섭을 마무리했다.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에 포함된 임금인상안은 2급이상 기본급 4% 인상과 3급이하는 기본급 4%와 정액 3만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임금인상안에 정액·정률을 병행한 것은 상하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 단체협상 합의안에는 휴직기간, 징계 및 징계절차 사전통보, 의료비 지원, 자격 면허 및 소지 수당과 기타 부속합의사항이 포함됐다.

노사잠정합의안을 노동조합에서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 76.34%로 통과돼 가결됐다.

여천단지 산별 노동조합의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임금인상안이 평균 11.2%를 나타내고 있어 대림산업 노조도 협상전 11.2%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남석유화학은 2003년 임금인상안이 5.8%로 가결된 바 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8>